

토요일엔 문화랑 놀자

광주문화재단 '꿈다락토요문화학교' 38개 프로그램 30주 과정 무료로 진행

사업비 6억원 지난해의 두 배 초중고생에 가족도 함께 즐겨

'토요일엔, 문화랑 놀자.' 나만의 가구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시장에서 맛갈스런 음식점을 운영하는 상인에게 요리를 배우는 것도 즐겁다. 광주 음성읍의 흔적을 따라 가며 있고 있던 광주 역사를 다시 만나고, 뮤지컬도 제작해본다. 합합과 악기 연주를 배우는 즐거움도 있다. 문화기획자가 돼 직접 행사에 참여해 볼 수도 있다.

광주문화재단이 진행하는 '꿈다락토요 문화학교'는 초중고생 뿐 아니라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사업비가 6억 7500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나면서 프로그램이 더욱 풍성해졌다. 38개 프로그램 가운데 취향에 맞는 걸 찾아보자. <프로그램 표 참조> 모든 강좌는 대부분 30주 과정으로 진행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으며 참가비도 따로 없다.

기획공모 선정 프로그램은 모두 6개다.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의 '내가 상상하고 디자인하는 2050 문화도시 광주-광주읍성 흔적을 통해 미래 유산 남기기'는 광주읍성의 역사와 기억을 찾아가는 프로그램이다.

(재)재문화재단이 '우리들이 그리는 동화, 수목 이야기'는 옛그림이 전하는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친숙한 웹툰 형식으로 변형해 보는 기획이다. 또 '지구발전 오라'의 '가족의 결합'은 대인예술시장에서

■ 2016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지역연계프로그램

운영단체명	프로그램명	교육대상
(재)재문화재단	우리들이 그리는 동화, 수목이야기	중학생
은암미술관	아시아의 옛이야기-마법의그림여행	초등학생
(재)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광주읍성 흔적으로 미래문화유산남기기	초등학생(고)
지구발전 오라	가족의결합-PublicStreetFurniture	초·중고생, 가족
빛고을 오키나와	오키나와로 부르는 마을이야기	초등학교가족
(사)들꽃영토	인문학동네 예체능	초·중·고 청소년
신창동주민자치위원회	2천년전 신창동 타임캡슐 2탄	초등학생 가족
문화행동 S#ARP	소셜플레이, 우리끼리 ○○○○하자!	중고생
극단 얼아리	응답하라, 통 통 TONG!	초등생(고)
(사)광주건축가회	행복을 담는 건축학교	초(고)중고
국윤미술관	우리는 Webteen	중등생
광주문화예술교육원	톡톡! 댄싱 톡!	초등생
함세우재단	핑크구름 두동실	초등생
화음아문화예술인협동조합	화음으로 만들어가는 행복한 놀이터	초등생(고)
나무로협동조합	피노키오의 꿈	초등생가족
문화경영연구소	멜티스토리 북 '작은 마을 이야기 4'	초등학생
강숙자오페라리인	우리는 뮤지컬 가족 '꽃이피는우리동네'	중등학생 가족
광산구장애인복지관	모여라!배워라!사랑하라 '토요학교'	초등학생
문화예술통합교육 '진 아트'	구석구석 찾아가는 여여여자	초등학생
작은도서관 숲	오감프로젝트 대인마켓 in 요리 미	초등학생
무주현대미술관	Come Together 조형예술학교	초등학생(고)
희망문화협동조합	연극과 함께 하는 영화 제작 교실	중고등학생
엔오피(NOP)	함께하고 즐기고 표현하기	중고등학생
사단법인한국예술인협회	꿈을 가지고 노는 토요일	초등학생
광주대 힐링뮤직센터	악기공방이야기-상상의 소리를 입히다	중고생 가족
남주주민회의	"청소년 작가들의 콘마를 대충여행"	초(고)·중등1학년
(사)광주기독교청년회	거리위의 꿈꾸는 드로잉아티스트	초(고)·중학생
나오네트워크	전래동화로 배우는 전통 문화	초·중학생
아트주	양촌 골목길 문예학교	중학생

'퍼블릭 스트리트 퍼니처'를 제작해 보는 프로그램이며 아트컬처 너랑나랑 '꼬불꼬불 런웨이'에서는 디자이너와 함께 내가 살고 싶은 공간을 직접 만들어보는 본다.

일반 공모에서는 오키나와 부르기, 전래 놀이, 문화예술여행, 합합 배우기, 악기공방, 광주탐험 등을 주제로 32개 단제가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다.

(사)들꽃영토의 '인문학동네 예체능'은 음악(기타·드럼), 미술(캘리그래피), 체육(방송댄스), 제과제빵(교실 베이킹) 중 하나를 배우는 기획으로 음악감상, 오토캠핑 등 체험활동이 함께한다.

신창동주민자치위원회가 진행하는 '2천년전 신창동 타임캡슐'을 통해 신창동 유적지와 풍영정, 무양서원 포함 체험교육 프르다. '문화행동 S#ARP'은 '세상을 바꾸는 힘-소셜플레이, 우리끼리 ○○○○하자'는 문화기획을 직접 해보는 프로그램으로 청소년 축제와 지역행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극단 얼·아리의 '응답하라, 통 통 TONG'은 연극을 중심으로 음악, 무용, 미술을 통합한 프로그램이며 (사)한국건축가협회 광주건축가회 '행복을 담는 건축 학교'는 건축을 통해 동네를 경험하고 기억한 경험들을 모아 자신만의 이야기로 재구성해 보는 기획이다.

국윤미술관의 '우리는 웹틴'에서는 청소년들에게 인기 많은 웹툰을 직접 제작해 보며 비상무용단의 '핑크 구름 두동실'과 광주문화예술교육원의 '톡톡! 댄싱 톡!'을 통해서 다양한 무용을 배울 수 있다.

함세우문화예술인협동조합의 '화음으로 만들어가는 행복한 놀이터', 나무로협동조합의 목공 프로그램 '피노키오의 꿈', 강숙자오페라 리인의 '우리는 뮤지컬 가족-꽃이 피는 우리 동네', 작은 도서관 숲의 '오감 프로젝트 대인마켓 IN 요리 미'도 눈길을 끈다. 문의 062-670-576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박진현의 문화카데

조금 부끄러운 얘기이지만, '비엔날레(Biennale)'라는 단어를 처음 접한 건 1980년 대 말이었다. 당시 대학 4학년이었던 나는 취업준비를 하느라 일반상식과 시사상식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책을 자주 들여다 봤었다. 그때 문화예술관련 상식분야에 나온 비엔날레는 너무 생소했다.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국제 현대미술전람회', 비엔날레의 사전적 의미가 머릿속에 쉽게 그려지지 않았지만 입사 시험에 나올지 모른다는 생각에 무작정 외웠던 기억이 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요즘, 비엔날레는 유치원생들도 알만한(?)

'동양화 비엔날레'다. 최근 전남도엔날레(2016년 대 말이었다. 당시 대학 4학년이었던 나는 취업준비를 하느라 일반상식과 시사상식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책을 자주 들여다 봤었다. 그때 문화예술관련 상식분야에 나온 비엔날레는 너무 생소했다.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국제 현대미술전람회', 비엔날레의 사전적 의미가 머릿속에 쉽게 그려지지 않았지만 입사 시험에 나올지 모른다는 생각에 무작정 외웠던 기억이 있다.

'동양화 비엔날레' 통할까?

진숙한 용어가 됐다. 지난해 창설 20주년을 맞은 광주비엔날레 덕분이다. 사실 광주비엔날레의 등장은 '센세이션' 그 자체였다. 설치·영상 위주의 난해한 현대미술을 접한 관람객들은 적지 않은 문화충격에 빠졌다. 이는 미술관 전시와 구별되는 비엔날레의 아방가르드적 속성 때문이다. 너무 시대를 앞서가거나 새로운 전시패러다임을 보여주는 작품, 미술관이나 갤러리에서 전시하기 힘든 대작들을 볼 수 있는 곳이 비엔날레다.

하지만 한국에선 비엔날레가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는 느낌이다. 실험성 강한 국제 미술전이라는 본래의 의미와 달리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이벤트로 변질되고 있다. 서에 비엔날레, 도자비엔날레, 공예비엔날레, 금강자연 미술비엔날레 등의 명칭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갈수록 관객이 줄어들면서 지자체의 돈만 축내는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그런데 머지 않아 또 하나의 비엔날레가 탄생할 듯하다. 이쯤하여

레오 키운다는 계획이다. 물론 전남의 빼어난 문화자원을 국내외에 알리는 '남도문예 르네상스'의 의미 있는 도전이다. 하지만 '동양화 비엔날레'라는 카드는 기대 보단 우려가 앞선다. 비엔날레와 같은 대형행사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시설과 조직, 재정, 인력 등 중점과목의 공과가 전제돼야 한다. 하지만 동양화는 선호하는 계층이 비교적 한정된 데다 작가들의 저변도 그리 넓지 않다. 게다가 호남에는 이미 광주비엔날레라는 대표적인 행사가 있는 만큼 전남의 비엔날레 유치는 정무로부터 예산을 끌어 오는 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만약 동양화의 가치를 현대적 의미로 확대하고자 한다면 광주비엔날레 기간에 의해 허백련 화백의 예술혼이 깃든 의재미술관이나 아산 조방현 화백의 분신인 곡성 옥과 미술관 등에서 특별전을 개최하는 게 더 현실적일 수 있다. 경쟁력 없는 축제는 없으니만 못하다. <편집국장·문화전문기자>

크리스토프 마탈러 '테사 블롬슈테트' 국내 초연

26~27일 문화전당 예술극장 시즌 '아워 마스터' 초정작

스위스 출신 연출가 크리스토프 마탈러 작품이 국내에서 초연된다. 상연작 음악극 '테사 블롬슈테트는 포기하지 않는다' (이하 테사 블롬슈테트)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2015-2016 시즌 '아워 마스터' 초정작이다. 26일 오후 6시, 27일 오후 3시 예술극장 극장 1.

취리히 국립극장 감독을 역임한 크리스토프 마탈러는 유럽연극상, 베를린 연극상 등을 수상했으며 섬세한 아이러니를 내세운 연출 기법을 통해 유머와 부조리를 드러내는 작품들을 제작해왔다.

'테사 블롬슈테트'는 평범한 사람들의 사랑에 대한 인간적 욕망과 꿈, 소망을 다

룬 작품으로 독일 최고 공연장 민중극장 (1914년 건립)과 공동 제작했다.

주인공은 생일이 여러 개인 여자 테사 블롬슈테트다. 한 번에 세 개의 세대를 넘나드는 그녀는 연애나 중매 전문가지만 정작 본인은 그 방면에서 별 성공을 거두지 못한다. 연애 방식은 시대에 따라 변한다. 링크로 써서 왁스로 봉한 연애 편지와 공인 만남 시대를 거쳐, 유선전화와 디스코장 만남을 지나 클럽 데이트와 이메일 소통으로.

수없이 많은 다툼을 겪고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그녀는 누군가를 찾고, 누군가가 찾아주길 갈망하지만 그녀의 사랑은 만만치 않다.

2004년 베를린 연극상을 수상한 무대 디자이너 안나 비브록의 작업도 눈길을 끈다. 무대를 반으로 나눠 양쪽에서 서로 다



른 일들이 진행되도록 한 그녀의 무대는 무대가 바로 연극 그 자체임을 보여준다. 음악극인 만큼 작품에 등장하는 음악들도 관심을 끈다. 바로크 음악과 독일 대중가요가 함께 등장하며 극중 여자배우들이 부르는 노래 등이 베를린 공연 당시 호평을 받았다. 이번 공연에는 파스빈더 감독의 영화 '불안은 영혼을 잠식한다'에 출연했던 임 하란과 민중극장 배우들이 출연한다.

티켓 가격 5만원, 3만원, 1만원. ACC 홈페이지(www.acc.go.kr)와 콜센터(1899-5566)에서 예매가능하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제5기 미디어아트 레지던스 입주작가 6개팀 선정

광주문화재단 '제5기 미디어아트 레지던스' 입주작가로 김지아, 박세희, 안유자, 이성용, 임유현, 미디어엑스팀 등 6개팀을 선정했다. 지난해 이어 2년 연속 선정된 김지아 작가는 작년에 진행된 무의식 연구를 기본 작업방향으로 설정하고 올해에는 타자에 대한 무의식 연구 등 작업방향을 확대시킬 계획이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표 신도원, 핑크파파, 폴바주카 등 작가 3명으로 구성됐다. 아방가르드 정신을 모토로 비디오와 사운드, 퍼포먼스 등 다양한 실험으로 새로운 예술장르를 만들 예정이다. 박세희 작가는 회화·사진·영상 설치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인간 삶의 본질적인 이야기들을 담아낸다. 문의 062-670-7944.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특허방수 2중단열 방수, 전천후 시공성, 절연방식 시공, 내구성 탁월

특허(제10-1097784호), 특허(제10-0562035호), 특허(제10-0548189호)

하자없이 20년은 너뿐히가는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특허방수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특허(제10-1239196호), 특허(제10-0562035호)

낡은 건축물을 새 건축물로~ 차별화된 익스테리어로 건물의 새로운 가치창조를 통한 제테크 효과 - 방수와 디자인까지 일석이조! 단열효과로 냉난방비 절감까지~

시공후 시공전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검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주세요.

광주전남 대리점 (062) 511-0444

목포대리점 (061) 284-048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순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와인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네르
- 맞춤형 출장도시락

파라솔 바깥 5회연속 선정

세미나, 연회장, 상견례, 가족모임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 각종모임은 전통있는 아리랑하우스 | 계약문의 (062)525-2111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www.geumsoojang.com